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³⁶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³⁷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³⁸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³⁹예수를 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⁴⁰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⁴¹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⁴²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를 더 사랑하겠느냐 ⁴³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⁴⁴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⁴⁵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⁴⁶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⁴⁷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⁴⁸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⁴⁹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⁵⁰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눅7:36-50)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악을 피하지도, 물리치지도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자기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유전 악(*the evil that is in man by heredity*)이라는 게 그의 생명을 이루는 까닭은, 그것이 그의 본질, 본성(*own, proprium*)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런 악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모든 걸 그 악들, 곧 자아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악들이 제거되면, 이 일은 그가 악들이 지옥적(*infernal*)이어서 악들을 피할 때 일어나는데, 그때는 주님이 천국 진리들과 선들을 가지고 그에게 들어가셔서 그를 이끄십니다. (AE.864:6)

※ AE(*Apocalypse Explained*, 계시록 해설) 위 864번 글 6번 항에 대한 Ager 영역 및 Whitehead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veryone who does not thus shun and turn away from evils is led by self; and for the reason that the evil that is in man by heredity constitutes his life, because that is his own (proprium); and until such evils have been r

emoved man does all things from them, thus from self. But it is otherwise when evils have been removed, which is done when he shuns them because they are infernal; then the Lord enters with truths and goods from heaven, and leads him.

이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에 관한 주석 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These are they that follow the Lamb whithersoever He goeth.*)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셨는데, 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죄를 지은 여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36절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³⁶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³⁷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³⁸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진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들 중엔 거의 없었지만, 아주 가끔 그들 가운데 주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새 교회의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끔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를테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으로 주님을 찾아온 여자는, ‘여자’는 속 뜻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

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녀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진리에 따라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지옥의 유혹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는 중에 가끔은 힘에 겨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여자는 이를테면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에는 그녀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뒤에 서 있는 것’, 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계시록 해설’ 864번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한 마디로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아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직 주님의 뒤를 따라 걷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뒤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고는 하지만, 아직 뜻대로는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말씀에서 ‘**걷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울고 있습니다. 매순간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여자가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샌들 같은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 의례 발을 씻었고,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내드리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영적 의미로 ‘**발**’은 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는 것**’은 걸 사람의 거짓을 씻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걸 사람 안에 계신 주님, 즉 진리를 닦는 것입니다. 걸 사람 안의 진리를 매일 씻어야 하는 이유는, 걸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섞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머리털은 인체의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외적 진리란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투와 행동거지 같은 진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합리적이고 선한 것들로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여자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말씀에서 ‘**향유**’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은 걸 사람의 진리가 영적 선과 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걸 사람의 진리와 영적 선이 결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검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영적 선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행동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선이 있는 진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선이라고 했는데, 영적 선과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자연적 선은, 먼저,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영적 선, 그리고 보통은 타고난 선을 자연적 선이라고 합니다. 타고나기를 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선이 자연적 선입니다. 또 성문서에 보면 불행한 일을 겪거나 중한 질병을 앓은 후에도 자연적 선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성격이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쉽게 공감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적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선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자연적 선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처럼 걸 사람의 진리가 행동을 통해 영적 선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³⁹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⁴⁰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자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라고 말이지요. 바리새인이 주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이라고 한 것은 그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은 있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 교회 밖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발을 하나씩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진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지적 관심 때문이거나 진리를 이용,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⁴¹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⁴²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으니 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⁴³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서 ‘빛 주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오백 데나리온과 오십 데나리온은, ‘오백’이라는 수는 완전한 것을 나타내고, ‘오십’은 부분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백 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자이고요, 오십 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죄의 일부만 사함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 중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완전히 사함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짓던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본문의 여자가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뒤의 44절로 47절까지 말씀은 완전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자를 돌아보시더니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⁴⁴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⁴⁵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⁴⁶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⁴⁷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자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비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려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는 것입니다. 여자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진리는 곧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에 따라서 그 진리는 점점 순수한 진리로 변합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이 세상 사시는 동안 점점 인성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유전을 벗어나고, 당신 안의 여호와와 신성과 완전히 하나 되는 과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행하는 진리의 순수성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주님의 발을 닦기만 한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면, 향유를 붓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리와 선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

기 때문에 멀리하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구원한 믿음은 바리새인의 고고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눈물로 자복하는 회개의 믿음이었고, 주님 앞에 나서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비판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과연 진리인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짓습니

눅7:36-50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다. 그러므로 죄의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행동을 통해 사랑이 많은 자가 죄 사함을 많이 받고, 사랑이 적은 자는 죄 사함도 적다 하셨습니다. 여자처럼 새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이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7:24)

아멘

원본

2018-09-16(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14(D3)

눅7:36-50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